

국민의힘 “윤석열이 하남 살린다”

하남시 덕풍시장서 유세 활동 이창근 위원장 중심 원팀전략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 국회의원과 경기도당 유세단이 19일 하남시 덕풍시장을 찾아 하남시 국민의힘 집행부와 함께 집중 유세를 펼쳤다.

경기도당 유세단인 NR크루는 윤석열 후보의 공식 로고송인 ‘짚이야!’ ‘HIP’에 맞춰 군무를 펼치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어서 하남시 당원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이창근 위원장과 교육위원장 김준희,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용우, 하남시 의회박진희 시의원, 김종복 전 시의회의장이 연사로 나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강력히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든든한 안보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풍요롭고 번영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 후보를 선택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남시 젊은 인재 영입으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김성원(가운데) 의원과 경기도당 유세단이 19일 하남시 덕풍시장을 찾아 하남시 국민의힘 집행부와 함께 집중 유세를 펼쳤다.

는 제 20대 대선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일념(一念)으로 이창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팀(One Team)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나된 마음, 하나된 생각으로 하남시 국민의 힘 모두가 대선 승리에 집중해 다

가오는 3월9일 대선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창근 위원장은 덕풍시장 유세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자유와 공정을 살리는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

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반드시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가 “하남의 힘”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학모 기자**

의회 단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개교 예정인 학교를 방문해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개교 예정 학교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개교 예정이 학교를 방문해 준비 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1일부터 이날까지 연수구의 미송유치원(송도동 309-4)·현송중학교(송도동 309-11), 서구의 아라공유치원(당하동 산42-2)·아라중학교(당하동 산40)·아라고등학교(당하동 244)·이음중학교(원당동 90-1) 등 3월 개교 예정인 학교 6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개교 추진상황을 사전에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회의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교육위원들은 학교별 교실·강당·급식실을 돌아보며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또 교육청·학교·공사 관계자들과 질의·토론 시간을 통해 학생 통학 편의 개선, 마무리 공사 및 개교 후 하자보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종삼 기자**

“자치단체장 간선제... 자치분권 역행”

남궁 형 인천시의회 의원 “시민소통 거쳐 검토해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정부가 구상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간접선거)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

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

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 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들의 입김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종삼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가 22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결

인천 계양구의회 임시회

인천 계양구의회가 22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14건, 규칙안 2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21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호 의원),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결의안(신정숙 의회운영위원장),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충호 의원)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했으며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김유순 의장은 “2022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위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호 의원),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결의안(신정숙 의회운영위원장),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송홍일 기자

수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촉

윤리심사자문위 준수 자문 진정한 지방자치 기틀 마련

수원시의회는 21일 의정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석환 의장은 “앞으로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조석환(왼쪽에서 네번째) 수원시의회 의장이 의정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수원시의회)

린다”고 당부하며 “수원특례시의회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경기도의원 한마디

“도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앞장”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

유광혁(민주당, 동두천1·사진) 경기도의원이 1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모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각 분야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향



후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전파돼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16일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사소통 지원사업,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가족 휴식지원,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한성대 기자**

“하남시 개인택시 증가 최선”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민주당, 하남2·사진) 의원이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광주·하남 택시총량제에 대한 토론회 주최 및 택시조합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하게 됐다.

또한 광주·하남 택시 89대 증가 확보를 통해서 얻은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받게 됐고 현재 하남시와 광주시에서 차량대수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민의 대중교통 안착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뤄졌기에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했기에 이러한 쾌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최근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남·성남 간의 터널구축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이달 말까지 검토와 초안을 준비할 것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조이천·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절차와 마무리 예산확보를 위한 건설국의 발 빠른 예산확보도 건의했다. **김인창 기자**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민주당, 성남4·사진) 의원이 1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호 소통하는 채널로서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국 의원의 조례는 지난 2020년 3월 구 경기방송이 방송을 중단하고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라 침체된 경기지역 전



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들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국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게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앞으로 지역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창 기자**